

MBC뉴스 유튜브 구독자 453만명 돌파 -뉴스매체 중 1위 달성

유튜브로 MBC뉴스를 보는 구독자 수가 7월 4일 기준으로 453만 명을 돌파해 국내 언론사 유튜브 뉴스채널 중 1위를 기록했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53만 명을 기록한 MBC뉴스가 1위, 2위는 YTN(452만), 3위는 SBS뉴스(435만), 이어서 Jtbc(356만), KBS(295만) 등이다.

2년 전 MBC뉴스 유튜브 구독자

수는 SBS(271만 명), YTN(334만 명)보다 적은 230만 명이었지만 2년 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미 2023년 9월 MBC뉴스 구독자 수는 378만 명을 돌파해 SBS 뉴스(377만 명)를 제치고 지상파 1위에 올라섰고 2024년 7월 마침내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인 YTN을 추월함으로써 지상파 뉴스채널은 물론 국내 모든 뉴스채널 가운데

구독자 수 1위에 올라선 것이다. 기존 국내뉴스 채널 1위였던 YTN이 유튜브 채널 동영상만 MBC뉴스의 3배가 넘는 77만 개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MBC가 YTN을 추월해 구독자 수 1위를 달성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또한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MBC뉴스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 수는 166억 여회이며, 월평균 조회수

는 4~5억회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 우위를 지켜왔다. MBC는 이미 한 국갤럽 뉴스 채널 선호도 조사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1위를 차지해 시청자들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채널'로 선정됐었다.

또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언론 신뢰도 조사인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2년 연속 국내 언론사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로 선정된 바 있다.

임기의 마지막 하반기를 시작하며



장명호
(사우회장)

◆감사

코로나가 종식되던 2022년 3월에 사우회장에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고 적잖이 당혹스러웠지만 사우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보태는게 도리라고 생각해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이후 1,435명(휴면회원 167명)을 가진 사우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둑을 두러 오시는 분들, 노자, 장자 등 고전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 캘리그라피 회원들, 등산동호회와 낚시동호회원들과 함께 한 시간들은 참 유익했습니다.

단합대회와 송년회 같은 큰 행사 때는 한 자리에서 많은 사우들과 한꺼번에 인사 나눌 수 있는 호강도 누렸습니다. '고생들 하는데 식사라도 하자'고 정동 사무실에 일부러 나와 점심을 사주고 가시는 회원님들을 통해 MBC라는 조직이 주는 연대와 동질감에 두 배의 감사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간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발전기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우회에 대한 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과

사우회가 있는 정동 옛 MBC사옥은 55년이나 됐기에 매우 낡았습니다. 여의도 사옥에 새로 지은 MBC 소유 건물로 옮기는 것도 검토했지만 정동사옥을 더 선호하는 회원들

이 많아 이곳을 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냉난방시설, 바닥과 천장과 벽, 전기배선, 창문, 출입문 등 총체적인 改修에 돌입했고 약 3주간의 공사기간 동안 본사의 간부들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사 지휘를 맡아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재정면에서는 주 수입원인 보험수수료가 계속 줄어들고 게다가 본사의 보험계약제도 또한 바뀌어서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특단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상근부회장 직을 폐지하고, 20년간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근무하던 여직원 대신 사무처장이 직접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따게 함으로써 경상비를 대폭 줄이고, 본사를 퇴직한지 얼마 안된 신입회원을 섭외하여 유연근무제를 택함으로써 모든 행정업무를 재정비했습니다.

◆관계

사우회 재정은 주로 MBC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에 MBC의 재정이 튼튼해야 사우회도 안정이 됩니다. 다행히 지난 3,4년간 MBC의 경영성과도 좋았고 사우회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와 관심, 특히 현직에 있는 후배들의 사우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우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야 하기에 사무처에서는 퇴직 예정자 교육시간의 일부를 배정받아 사우회 안내와 회원 가입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MBC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MBC는 계속 발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우회가 어떤 역할로 기여할 수 있을지 다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www.fbc.or.kr



MBC와 늘 함께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품격있는 방송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로서 MBC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최고의 공영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콘텐츠진흥, 학술지원,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5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주철환(편제) 100만원 • 석남수(기술) 30만원 • 양건승(업무) 20만원 • 안호선(관리) 10만원 • 윤재근(보도) 10만원 • 김종한(관리) 10만원
- 윤풍기(관리) 30만원 • 김명철(기술) 20만원 • 이종광(관리) 20만원 • 최우철(편제) 10만원 • 이원하(기술) 10만원 • 최대홍(관리) 10만원
- 한숙동(편제) 30만원 • 강태선(기술) 20만원 • 윤만석(관리) 20만원 • 이현규(보도) 10만원 • 오창식(보도)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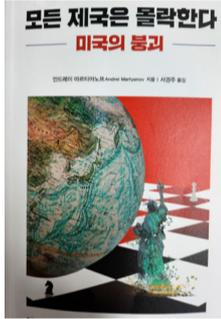


회/원/동/정/

▶서경주(편제)



7번째 번역서 『모든 제국은 몰락한다-미국의 붕괴』를 출간했다. 원작은 러시아 군사문제 전문가 ‘안드레이 마르티야노프’의 <Disintegration-American Collapse>으로 미국 엘리트 집단의 타락상을 지적한 작품이다. 서 회원은 퇴직 후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시민 불복종> <동물지> <이교도 미술> 등을 번역했다.



▶이현규(보도)



8순을 맞아 회고록 오동 교수의 『山房日誌』를 출간했다. ‘귀촌 이야기’, ‘버킷리스트’, ‘MBC 시절’ ‘號 이야기’ 등 현재의 일상생활과 지난 날의 추억 등을 다양하게 엮었다. 특히 中始祖인 梧里 李元翼 할아버지의 號를 본따 梧東이라 지은 號의 내력이 재미있다.



▶강성주(보도)



『박정희 김대중, 그들이 만든 세상』을 출간했다. ‘국제부 기자가 본 한국정치’라는 副題를 단 이 책은 1961년에서 1979년까지 18년간 두 정치지도자들의 엇갈린 길을 外信 기사를 길잡이 삼아 살펴본 역작이다. 무려 707페이지에 달한다. 강 회원은 현재 (사)이육사 추모사업회 이사로 이육사 현彰顯彰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전병덕(관리)
1994년 입사. 문화사업부장, 경영본부장 등 역임. 현 원주 MBC사장.



▶정태복(관리)
1995년 총무국 입사. 구내식당 조리업무 담당 등 근무. 2024년 퇴사.



▶김재현(편제)
1987년 영상미술국 입사. 영상1부 등 근무. 2018년 퇴사.



▶권미현(관리)
1984년 정보시스템부 입사. 보도국 자료실, IT솔루션팀 등 근무.



▶임경래(기술)
1991년 제작기술국 입사. 종합편집기술 감독 등 근무. 2024년 퇴사.



▶이우상(기술)
1987년 기술국 입사. 중계부, 기술관리부, 송신부 등 근무.

신입회원 환영 간담회

7월 3일 낮 신입회원 환영회 겸 간담회가 사우회 인근 한 식당에서 열렸다. 안혜란(편제), 박혜영(편제), 김종민(편제), 강영은(ANN), 이동원(관리) 등 5명의 신입회원과 장명호 사우회장, 김상옥 부회장, 류근중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장 회장

은 “후배들의 가입을 환영하며 앞으로 사우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기 바란다”는 환영 인사를 했고 후배들은 “옛 선배들을 다시 만나니 반갑고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식사가 끝난 후 사우회로 자리를 옮긴 신입회원들은 사우회



에 관해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했고 사무처장은 소상하게 설명해줬다. 한 시간여 간담회를 마친 신입회원들에게 사무처는 조출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경조사항

구순: 권해옥(감사) 35.08.15
 팔순: 유민환(편제) 45.07.16 진성수(기술) 45.08.06 윤홍섭(보도) 45.08.10
 김우중(관리) 45.08.11 조병락(기술) 45.09.03 육수길(관리) 45.09.07
 고희: 류근종(관리) 55.07.18 이경기(관리) 55.07.29 김형욱(기술) 55.08.10
 조승필(관리) 55.08.15 고연도(편제) 55.08.15 한재수(관리) 55.08.16
 신복남(업무) 55.08.19 성경환(ANN) 55.09.05 강효복(관리) 55.09.15
 양재철(보도) 55.09.15
 화갑: 박두선(기술) 64.08.13 강선희(관리) 64.08.19
 결혼: 이학규(편제) 딸 06/08 최우철(편제) 아들 06/09
 이상진(보도) 아들 06/29 강태선(기술) 아들 07/13
 이정준(보도) 아들 07/13
 부음: 조복현(기술, 64년생) 장모상 05/31 김호경(편제) 모친상 06/11
 김규수(기술) 배우자상 06/15 조학동(기술) 장모상 06/16
 정 준(관리) 모친상 06/22 윤만석(관리) 부친상 06/23
 김재현(편제) 장모상 06/26 김홍수(관리) 모친상 07/01

연회비

평생회비: 권미현(관리) 김재현(편제) 이정택(기술) 이재원(관리)
 전병덕(관리) 정태복(관리)
 2024년: 김종창(편제) 송기남(관리) 신해명(관리) 오순심(편제)
 윤풍기(관리) 이오기(편제) 임경래(기술)

주소변경 / 신규

편제: 김승월 서울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시범아파트)
 김재현 서울 마포구 성암로11길 60 (DMC마포청구아파트)
 보도: 이준희 서울 용산구 청파로 213 (이안용산프리미어)
 이해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기술: 이정택 서울 구로구 중앙로15길 151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임경래 서울 강서구 강서로46길 79 (길성그랑프리텔아파트)
 관리: 권미현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0 (역삼자이아파트)
 전병덕 서울 성북구 성북로 (성북동)
 정태복 서울 양천구 신월로 99 (신월시영아파트)
 업무: 김재식 경기 하남시 감일백제로 155 (감일역 트루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徐基錫(관리)
 5월 31일 별세.
 향년 84세.
 1986년 총무
 국 총무부 입사.
 1997년
 정년퇴직



吳炳奭(관리)
 6월 20일 별세.
 향년 91세.
 1977년 문화관광
 (주) 입사. 1976년
 MBC시설운용부
 근무.



金東鎭(보도)
 6월 25일 별세.
 향년 79세.
 1970년 보도국
 입사. 정치부장,
 워싱턴 지사장 등
 근무.
 삼척MBC 사장.



裴聖龍(업무)
 6월 28일 별세.
 향년 90세.
 1971년 영업국
 광주지사 입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광주지사 근무.

경조규정 일부 개정

경조규정 개정(2024.2.5.)으로 5월 1일부터 회원 본인喪과 배우자喪에 한하여 조의용품(200인분 1박스)이 제공됩니다.
 조의용품에는 새롭게 디자인한 사우회 로고가 인쇄되어 있다. 조의용품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비로 주문할 수도 있다.

추가 주문 연락처는 사우회와 업무협약 업체인 C&G라이프 박성준 대표(010-8761-6643)며 조의용품 외에도 장례 전반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MBC 사우회를 위한 고품격 상조서비스

만족도 100% 국가공인 전문인력 장례지도사가 고품격 장례를 진행해 드립니다.

**MBC 사우회
전용 일회용품**



**MBC 사우회
전용 특별기획상품**

고급형 특별할인가	일반가 : 4,600,000원— 300만원
기본형 특별할인가	일반가 : 3,600,000원— 248만원

거품없는 가격, 알찬 상품 구성으로 MBC 사우회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전용 상품입니다.

상품 문의 : 010-8761-6643

24시간 장례접수 : 1544-4744

나의 MBC 시절

남북 스포츠 교류 현장의 추억



서정훈(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간의 상황도 달라지고 정답 같은 정치적 대응책은 없어 보인다. 돌이켜보면 남북 간의 경색이 강화되고 심하게 대립했을 때도 교류의 싹은 흐르고 있었음을 기억한다. 그 싹 역할 했던 분야가 바로 스포츠 교류였다.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출전은 남북 스포츠 교류의 절정이었다. 대통령들의 방북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안이지만, 스포츠는 정치적인 접촉과 교류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스포츠 기자로 국제대회를 취재하면서 겪었던 북한 관련 현장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본다.

1. '激情' 평양 4박 5일

제11회 북경아시아게임이 끝나고 이틀 뒤인 1990년 10월 9일 오전 9시 30분, 베이징국제공항에서 인공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조선민항 특별기에 탑승할 때만 해도 평양에 간다는 실감은 전혀 나지 않았다. 분단 45년의 두꺼운 벽을 깨트리는 역사적인 남북통일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차경호 기자, 임종근 카메라 기자와 함께 조선민항기에 올라 북한의山河, 평양시가지 모습 등을 상상하며 4박 5일간의 북한 방문 여정은 시작됐다. 낮 12시 30분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하는 순간 수많은 평양시민이 꽃술을 흔들며 남쪽에서 처음으로 공항을 통해 공식 입국한 선수단을 환영했고 그 열기는 낮이 나갈 정도였다. "조국 통일"을 연호하는 평양시민들은 두 줄로 길게 늘어선 선수단을 에워싼 채 광적인 환영을 보내 그렇지 않아도 "평양 도착"이란 엄청난 격정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일행을 얼떨떨하게 만들었다. 대형 관광버스에 올라 시내로 향하는 일

행에게 안내된 한 명씩이 짝지워졌고 그 짝은 평양을 떠날 때까지 분신처럼 따라다녔다. 선수단 등 일행 76명은 공항 도착 2시간 만에야 숙소인 고려호텔에 짐을 풀 뒤 곧장 경기가 열리게 될 '능라도 5·1 경기장'을 둘러보는 등 일정에 따라 평양 시내를 관광했다. 거대한 회색빛 전도시 평양은 안내하는 곳마다 그들이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할 만큼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평양시가지와 시설들에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첫 리포트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버스가 모란봉이 보이는 대동강을 지날 즈음 '여기에서 오프닝을 하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때마침 일행 중 누군가 "대동강물에 손 한 번 담귀 봅시다"라고 외쳤고 안내원 책임자는 곧바로 강변에 버스를 세우게 하더니 "딱 5분만 시간 드립니다"고 했다. 나는 임종근 카메라 기자 옆구리를 찌름과 동시에 짹짹 마이크를 들고 모란봉과 대동강을 배경으로 스탠드업을 했다. "평양의 상징인 모란봉 앞에서 있습니다. 대동강변의 모란봉은 이산가족들의 한 맺힌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감격적인 평양에서의 첫 보도를 그렇게 전했다. 내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던 '그림자 안내원' 리영일 씨와 깊이 나눴던 이야기며 10월 11일 통일축구가 열렸던 '능라도 5.1경기장'의 15만 관중의 함성, 옥류관의 평양냉면, 한필화 씨 가정 단독 취재, 그 취재 도중 불쑥 찾아온 조선중앙방송 기자의 인터뷰 요청 등 스포츠 취재로 방북했지만 그 이상의 다양한 북한 모습을 경험했음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2. MBC특별취재팀의 '평양 현지 생방송'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20여 일 앞둔 9월 11일 MBC는 방북 승인을 얻어 특별취재팀이 단독으로 평양에 들어갔다. 통일방송연구소 소장인 김영일 국장을 단

장으로 박영선 앵커와 유기철, 선동규, 김현경, 김장겸, 윤동렬, 서정훈 등 부장급 리포터들로 취재팀을 구성했고 영상 취재와 기술, 보도 운영 등 20여 명이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 조선중앙TV 스튜디오에 간이 세트를 만들고 3박 4일간 평양의 이모저모를 생방송했다. 최초로 남쪽의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북한선수단 관련 뉴스가 중심이었지만 스포츠를 구실로 평양의 가을풍경과 농기계 공장, 지하철, 골프 연습장, 창광거리와 백화점 등 7명의 기자들은 평양의 이곳저곳을 다양하게 취재해 전달했다. 평양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뉴스데스크 현지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평양의 현재를 그대로 전달하는 파격으로 엄청난 시청 효과를 거뒀고 MBC의 저력을 과시한 쾌거였다.

개인적으로는 90년 통일축구대회 취재 이후 12년 만의 평양방문이라서 변화된 평양시가지는 눈여겨보았고 숙소인 고려호텔과 대동강, 창광거리, 남새시장, 식당 등 낯설지 않은 풍경에 거리감도 없었다. 특별취재팀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스튜디오 사용료와 송출료, 숙박비 등 현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의 현금을 관계부처의 승낙을 얻어 달러로 환전해 검정 가방에 넣어 갔었다. 보도운영팀의 김관식 씨는 잡자리에서도 이 블랙박스를 손목에 수갑으로 채워 지킬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그 가방에서 모든 경비가 달러로 나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북한 안내원들은 방송팀에겐 흥미가 전혀 없었고 오직 그 가방과 김관식 씨에만 관심을 집중했다. 심지어 20여 일 후 부산에서 다시 만난 한 북한 간부는 인사에 앞서 "김관식이 어디 있소?" "그 가방 지금도 갖고 있소?"라며 그를 찾았다.



능라도 경기장

3. 남북 탁구 단일팀이 이뤄낸 '작은 통일'

1990년 10월 통일축구와남북교환경기로 스포츠 교류에 탄력이 붙은 남북한은 1991년 2월, 4차례의 판문점 회담을 통해 사상 최초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합동 선수단 구성은 일사천리로 이뤄졌고 그해 3월 일본 나가노 등 3개 도시에서 한 달간의 합동 훈련이 진행됐다. 한 달여의 현지 취재로 나는 북한의 이분희와 유순복 등 선수들과 김형진 총 단장과 자주 인터뷰를 했고 편한 사이가 됐다.

북측 선수들은 현정화와 홍차옥 등 우리 선수들이 나눠준 과자와 간식을 맛있게 먹었으며 협회의 다양한 지원과 관심에 굳어진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합동 훈련에서 남북한 사이의 이질감 예컨대 탁구 용어와 훈련 방법 등 각자의 몸에 익힌 것을 바꾸는 것이 힘들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나는 리포트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언급할 때 '작은 통일'이라는 멘트를 맨 처음 썼고 그 멘트를 여자단체전 우승할 때까지 계속 사용했는데 어느틈엔가 많은 현지 취재기자들도 '작은 통일'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북한 스포츠는 탁구와 축구의 단일팀 이후 3년여 간 국제무대에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단일팀 훈련과 경기 등을 통해 선수들의 사상에 균열이 생겼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3년 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시 상대팀으로 만난 북한의 임원, 선수들은 그렇게 다정했던 우리 선수단을 싸늘한 표정으로 쏘아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철저한 감시와 상부의 지시가 한술밥 먹던 동포들을 그렇게 또 갈라 놓은 것이었다.



평양 선수촌 오픈



북한 유순복(왼쪽) 이분희(오른쪽)선수와



옥류관 앞에서

김승월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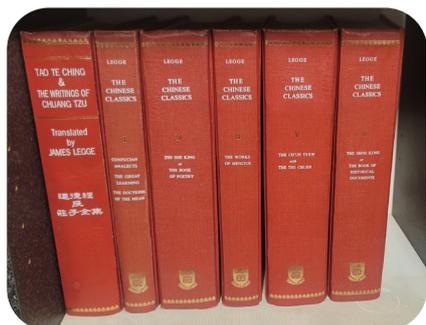
김승월 (편제·이사)

“아직도 더블 베드 쓰세요? 적어도 트윈베드는 쓰셔야지.” 집을 줄여서 이사 가는데 ‘퀵사이즈 침대가 못 들어갈까 봐 걱정’이라고 했더니 지인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나이에는 각 방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녜요? 각 집에서 살면 더 좋겠지만.” 어쩌다 보니 아직도 더블베드를 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동안 고생했다며 여동생이 사준 침대다. 아내와 살갑게 지내서라기보다 별 생각 없이 그리 살았다. 생각 없이 살던 내 모습을 이사 준비하면서 살펴보게 됐다.

야트막한 야산 기슭에 자리한 상암동 월드컵 파크 아파트에 살았다. “콘도 같아요.” 집에 들른 사람마다 인사차 말했다. 봄이면 꿩이 울고 여름에는 맹꽁이 소리가 난다.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열고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즐겼던 정든 집을 떠나, 사무실까지 걸어 다닐 만한 집을 찾았다. 나이 드니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져서다. 가격에 맞추다 보니, 집을 대폭 줄여야만 했다.

아내와 딸은 내게 30%는 버리란다. 요즘엔 작은 집도 드레스 룸은 있지만 서재는 없다며 책부터 버리란다. ‘귀한 걸 어떻게 버리냐’고 버티니 딸이 압박한다. “버려도 버린 줄 모르시잖아요. 지난 이사 때 광에 있던 책 박스를 엄마랑 버렸는데 안 찾으시던데요.” 의문이 풀렸다. 지방 취재 다닐 때 구해서 모아 두었던 여러 지역의 ‘군지郡誌’ 박스다. 내 눈앞에서 책을 버리면 다시 주워 오곤 하니 나 몰래 내다 버린 것이다. 언젠가 찾아보니 안 보여서 이상하다고만 여겼다. 책을 끼고 사는 척했지만 읽지도 챙기지도 않은 셈이다. 여동생과 조카도 이삿짐을 싸러 와서 합세했다. “이제는 모두 버리고, 편하게 사세요.”



영문 사서삼경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저마다 책 보관 장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남 주기도 쉽지 않다. 좋은 책을 쥐도 받을까 말까다. 애장 도서 중 하나인 영문판 ‘사서삼경’ 6권을 먼저 골랐다. 25년 전에 선물로 받은 책이다. 귀한 책이니 귀하게 다룰 분을 찾았다. 무협소설을 쓰는 웹작가에게 제안했다. ‘집이 좁다’며 난색을 표한다. 관심 가질 만한 몇 분에게 물어봐도 모두 고개를 젓는다. 김진웅 교수라며 올랐다. MBC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선문대 교수다. 동양 사상 관련 책도 집필한 분이다. 너무 고마워했다. 책이 제대로 임자를 찾아가다.

내세울 만한 나의 소장 도서는 라디오 제작 관련 책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라디오 책은 많지 않다. 한때 국내에서 나오는 책은 죄다 사 모았다. 외국에 갈 때도 서점에 들러 라디오 책을 구한 적이 있다.

아마존에 주문하기도 했다. BBC 라디오 PD 플로우라이트 Plowright에게서 몇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다 보니 20여 권의 외국 책을 갖게 됐다.

지금 강의 나가는 인하대의 도서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다. 10년 지난 책은 안 받겠다. 도서관도 보관 장소가 좁아서 해마다 오래된 책을 처분한다. 내 책은 거의 다 10년이 넘었다. 해묵은 책이지만 귀중한 자료라고 설득하니, 외국서적만 검토해 보겠다. 17권의 책을 보냈다. 인하대와 주변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은 빼고, 8권만 받았다.

그나마 많이 채택된 편이란다. 국내 발간 책은 방송 분야 서지학자로, KBS 출신이며 광운대 교수로 지낸 김성호 박사에게 부탁했다. ‘한국방송관계문헌색인’을 펴냈고,



인하대에 보낸 책들

지금도 방 2개에 방송자료를 쌓아 놓고 한국방송사를 다룬 책을 쓰고 있다. 언젠가 방송 박물관이 지어지면 모든 자료를 기증하겠다는 분이다. 선택되지 않은 자료는 버린다는 전제로 받아주었다. 우체국 5호 박스 두 개 분량의 책과 방송자료를 보냈다. 몇 주일 뒤에 만났는데 받은 책 중에서 2/3는 벌써 버렸다고 했다.

챙겨보니 방송자료가 꽤 된다. 지방 풍물을 소개하던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10년쯤 만들면서 전국 웬만한 곳은 다 누비고 다니며 그 지역 명사들과 인터뷰했다. 카세트테이프가 사과 한 상자만큼 나왔다. 은퇴하면, 다시 들어보고 여행기를 펴낼 꿈을 꾸었다. 이제는 가망 없어졌다. 서지학을 하는 분과 선이 닿아 설명했다. “각 지역의 명사, 전문가들과 인터뷰했어요. 이제는 거의 돌아가셨을 분들의 육성입니다.” 귀한 자료가 될 것 같다면서 가져갔다.

취재수첩과 방송원고는 한 번쯤 읽어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주지 않았다. 기회 되면 다 넘길 것이다. 외국 라디오 프로그램 원고와 CD도 있다.

국제 피쳐회의 International Feature Conference에서 독일 라디오의 대가 피터 레온하르트 브라운(Peter Leonhard Braun)을 만났다. 그와 인연이 더해져서 줄져 ‘라디오 다큐멘터리’ 추천사도 받았었다. 국제피쳐회의에서 발표한 라디오작품의 대본과 CD를 다섯 차례나 보내주었다. 듣지는 않았지만 간직하고 있었다.

김현수 MBC 라디오국장에게 그 자료를 기증하고 싶다고 했다. ‘양이 얼마나 되냐’고 묻길래, ‘사과 한 상자 정도’라고 줄여서 답했다. 더러는 덜어내고, 사 모아둔 외국방송 CD랑 한 상자에 담아 보냈다. 김 국장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라디오본부 벽장에 넣어 PD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마 듣지는 않을 거예요. PD들에게 자극이 되면 좋겠습니다.”



피터 레온하르트 브라운



레온하르트 브라운이 선물해준 'Radio Feature' 표지

자격증, 졸업장, 감사장, 상장은 커버를 뜯어내 버리고 알갱이만 남겼다. 감사패, 기념패도 더러는 버렸다. 어느 날 전직 교수와 이삿짐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었다.

자기가 보기에는 대단한 감사패가 이삿짐 쓰레기로 버려진 것을 봤단다. 옆 사람이 거들었다. “그래서, 감사패는 종이로 만들어야 해. 나중에 찢어버리면 되니까.” 취미로 수집한 물건도 짐이 되긴 마찬가지다.

부피가 작고 저렴한 기념품으로 마그넷을 모은 적이 있다. 외국에 갈 때마다 마그넷을 사 와 냉장고에 붙였다. 그것도 여러 해 모으니 냉장고 한쪽 벽을 덮을만큼 됐다. 한때는 아끼던 기념품도 시간이 흐르니까 심드렁해졌다. 봉지에 넣어 두었는데, 이번 기회에 산업폐기물 자루에 담아 버렸다.

내 소유물은 내게 물건 그 이상이다. 하나하나에 내 삶이 스며있다. 그렇지만 지닐 수 없게 됐으니 누군가에게 주고싶은데 그게 어렵다. 내게는 소중하지만, 남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설사 받더라도 언젠가 가차없이 버리지 않겠는가. 씩씩한 마음을 아내가 위로한다. “하늘로 이사 갈 때는 몸뚱이도 버리잖아요.”

집을 줄여 이사한 덕분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됐다. 이삿짐을 싸며 내가 꾸던 꿈을 하나하나 접었다. 짐을 버리니 애써 살아온 내 흔적도 지워지는 듯하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코헬렛 1:2)

〈나의 MBC시절〉



박수효(기술)

MBC는 1987년 12월 24일부터 1988년 1월 1일까지 남극 세종기지 건설현장을 생방송으로 보여주기로 하고 방송 진행요원으로 기자 6명, 카메라기자 5명, 기술스텝 5명을 선발했고 나도 5명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어언 3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 생애 가장 소중한 행복했던 그 추억을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더듬어본다.

▶C-130 허큘리스 군용 수송기 탑승

16명의 진행요원들이 많은 방송 장비와 함께 서울에서 남극 현장까지 왕복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남미대륙과 남극 대륙간 항로는 가장 어려운 구간에 속했다. 남극은 일년 내내 꽁꽁 얼어붙는 동토라서 일반 항공기는 착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만든 일반 활주로와 달리 이곳 활주로는 자갈을 깔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는 미국 록히드가 1950년 초에 제작한 C-130 허큘리스 군용 수송기가 유일했다. C-130수송기는 탱크나 대포 같은 중장비와 함께 완전무장한 300명의 병력을 싣고 남극같은 극한 험지에 이,착륙할 수 있는 엄청난 군용수송기였다. 회사에서는 미국 전 세계를 빌렸는데 그 비용이 무려 30만불. 당시 회사 형편으로는 큰 부담이었다.

어려움은 또 있었다. 건설 현장까지 가려면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칠레 남단 폰타아레나스를 경유, 킹조지섬까지 비행해야 하는데 칠레 당국이 킹조지섬은 칠레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 전세기의 착륙을 허락하지 않았고 게다가 자갈밭 활주로 착륙은 숙달된 칠레 공군 조종사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숙한 미국 조종사의 착륙을 허가할 수 없다면서 자기들 비행기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 구간은 칠레 수송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안고 킹조지섬에 16명의 스텝과 중

계방송장비, 이동지구장비(2톤 트럭+트레일러)들이 무사히 현장에 착륙했다.

▶1만2천톤 작업선과 남극건설현장

세종기지 건설에는 현대상선 소속의 1만 2천톤급 작업선이 동원됐다. 그 배의 갑판은 축구장처럼 넓었다. 갑판 아래층에는 식당, 숙소 등이 있고 그 아래층에는 기관실 등이 있는 생전 처음보는 큰 배였다. 너무 커서 수심이 얇은 해안에는 접근할 수 없어 2km쯤 떨어진 수심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리고 작은 연락선이 작업선과 현장 또는 칠레기지 비행장間을 오가며 작업 인원, 장비 자재 등을 운반했다. 우리는 작업선에서 숙식하면서 연락선으로 현장을 왕래하면서 임무를 수행했다. 건설 현장 소장과 작업선 선장 모두 현대그룹 소속이었다. 그런데 작업선과 현장을 둘러보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현장 소장과 작업선 선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 같았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샤워하려 화장실에 가보니 샤워할 만큼 물이 나오지 않았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은 충분히 나오질 않고 변기에서는 악취가 났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선장과 소장 사이의 알력(軋轢) 때문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우리 뿐 아니라 건설현장 요원들도 크고 작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급기야 소장은 건설현장 부지 내에 假건물을 세우고 바닷물을 끌어올려 정수장치를 만들어 건설요원의 식당과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선장 보란 듯 그것도 불과 며칠 만에 완성해버렸다. 그때서야 선장은 고장이던 화장실을 수리해서 원상태로 만들어줬다.

▶6개월간 해가 지지 않는 백야(白夜)

우리가 남극현장에서 지내야 했던 기간은 12월부터 1월 사이에 약 2개월 간이었다. 그 기간이 한국에서는 년중 가장 추운 한겨울이지만 남극에서는 한여름이었다. 한여름인데도 영하의 온도가 지속되는 추운 날씨였다. 말로만 듣던 24

시간 해가 지지 않는 백야(白夜)도 그때 체험했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대낮처럼 환했다. 갓고있던 광학사진기로 고감도 필름이나 조명장치 없이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숙소에 들어가니 창문에 두꺼운 차광 커튼이 쳐 있었다. 남극에서의 낮같이 환한 첫날 밤을 지냈다. 자는듯 마는듯 4시간여가 지났을 때 “숙소와 현장 간의 연락선이 떠날 시간”이라며 깨워서 눈을 떠 시계를 보니 오전 6시다. 두꺼운 커튼을 열고 밖을 보니 대낮같이 밝다. 백야를 다시 한번 실감한다. 23일 아침 7시. 현대건설 인부들과 함께 연락선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한국시간으로 25일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첫 생방송을 성공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추위를 느낄 새도 없다.

예상했던 것처럼 어려운 작업이어서 생방송 9시간 전에야 겨우 준비가 끝났다. 현장 화면을 본사 주조정실에 전송하는 시험이 고전 끝에 성공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어지고 피곤함이 몰려왔다. 해는 서편 하늘에서 밝게 비취고 白夜를 한번 더 실감한다. 두꺼운 커튼을 닫고 몇 시간 남지 않은 9시 생방송 시간을 생각하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준비하세요”라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시계를 보니 생방송 3시간 전이다. 연락선으로 현장에 도착하니 강풍이 불고 있다. 남극 지방의 강풍은 특이하다. 간헐적으로 바람이 분다. 옛저녁에 어렵사리 방향을 맞춰 놓았던 12피트(3.6미터) 접시 안테나가 흔들린다. 긴장된 마음으로 주조정실에 연락하니 수신상태가 불안하다고 걱정들이다. 바람이 간헐적으로 불어대니 속수무책이다. 현장 스텝들은 물론 멀리 서울 주조정실에서도 모두들 조바심을 하며 바람이 잔잔하기만을 기도했다.

마침내 생방송 시간이 됐다. 정병운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건설현장을 배경으로 한 화면을 주조정실로 보냈다. 화면상태가 좋았다가도 강풍이 불면 접시 안테나가 트레일 짜 흔들려 주조정실 수신 화면이 별령



거렸고 주조 엔지니어의 비명이 들리는 듯 했지만 현장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조마조마 한 첫 생방송을 겨우 마쳤다. 아쉬움과 성취감이 교차했다. 다음날의 생방송 때에는 바람이 잔잔해서 어려움 없이 방송했다. 여담이지만, 365일 내내 추운 남극에는 감기 환자가 없다고 한다. 추운 날씨씨가 365일 계속되니 감기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Everywhere is toilet

현장에 아직 화장실이 설치되기 전에 현장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었다. 소변일 때는 그래도 바람을 등지고 서서 시원하게 배출하지만 대변일 때는 하체의 대부분을 노출하고 쭈구리고 앉아서 남극의 찬바람을 견뎌야 한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덜덜 떨며 일을 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배설물은 즉시 냉동이 되어 아무 냄새도 나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 당시 건설 현장 소장과 미국인 스텝과의 대화는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됐다. 내용인즉 미국인이 “Where’s toilet?하자 현장 소장이 즉시 “Everywhere is toilet”했다는 거다.

▶끝으로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시도한 남극 TV 생방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극한 상황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했던 16명 스텝들의 공로였지만 미국 방송통신 용역업체 IDB Communications社의 기술협조도 중요했음을 밝힌다. 이동통신 지구국 운용기술은 당시 위성통신 기술의 극치로 평가되는 시절이었고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성공이 불확실한 남극에서의 위성통신 개통을 개척자적 정신으로 도전해서 성공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큰일에 참여했던 것은 일생에 큰 영광이요 자량이 아닐 수 없다.



노름(賭博)과 미간(眉間)



조정선(편제)

▶노름(賭博)

한 때 작곡가 최영섭 선생이 진행하는 <나의 음악실>과 <이종환의 디스크쇼>를 동시에 제작한 적이 있었다. 매주 목요일은 공개 녹음이 진행됐는데 당시 가장 인기 있던 가수는 조용필과 이 용이었다. 두 사람이 나오는 공개방송에는 극성팬들이 몰려다녔는데 이들이 프로그램 분위기를 자주 망쳐 냈다. 일단 박수는 치지 않고 괴성만 지르니 녹음물을 편집하면서 화가 치밀곤 했다. 또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만 관심을 보이고 다른 가수가 나오면 자기들끼리 떠들거나 짐짓 무시 전략을 쓰기도 했다. 그날은 이 용이 출연했었다. 팬들이 무리지어 정동 라디오극장 앞에 몰려와 먼저 들어가려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개홀의 좌석은 220개였는데 방청권을 따로 발행하지 않고 선착순 입장을 시켰기 때문이다. 소녀 팬들의 악악대는 소리 때문에 공개홀은 떠나갈 듯 했고 앞 순서였던 이 용의 코너가 끝나고 그가 작별인사를 하자마자 방청객 절반이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주위가 산만해졌을 때 이종환 선배가 큰소리로 한마디 했다. “조상만씨~ 조금 없어? 조금 좀 뿌려”(조상만씨는 작가 겸 스탭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방송이 끝난 후 벌어졌다. 옛된 목소리의 남자가 다음날 전화를 해 온 것이다. 자신은 경향신문사에서 정기간행물을 배달하는데 공개방송 때 몰려있던 방청객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실린더가 깨졌다는 것이다. 개연성은 있지만 목격자가 없으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말투로 봐서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듯해서 ‘황실다방’에서 보자고 했다. 예상대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나이의 청년이 법과대학에 다닌다는 친구 한 명을 대동하고 나왔다. ‘왜 함께 나왔냐고 물으니 ‘자기는 법을 몰라서 법 공부하는 친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참 순진한 친구로군~’ 웃음이 터졌지만 내색은 안 했다.

이토록 순진한 ‘배달의 기수’라면 실린더든 엔진이든 무조건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들겠냐?” 물었더니 8만원 견적이 나왔단다. 당시 월급이 32만원이었으니 무려 4분 1이나 되는 돈이었다. 세상에나, 8만 원이란

거금을 어찌 마련한단 말인가! 20대 중반 신입PD 시절이라 경험과 상상력 부재로 회사에 보고하고 돈을 청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저 내 프로그램에 온 방청객이 저지른 일이니 내가 마무리 지어야한다는 책임감만 느꼈다. 며칠 후에 해결해 주기로 하고 방법을 고민했다.

최영섭 선생은 소싯적에 카지노를 좋아해서 인생의 험난한 길을 자초하신 분이다. 최 선생 댁에서는 가끔 노름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무렵 최 선생이 여의도로 이사를 하셨다며 집들이를 하겠으니 오라고 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섯다’판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받은 패가 족족 땡이 걸리는 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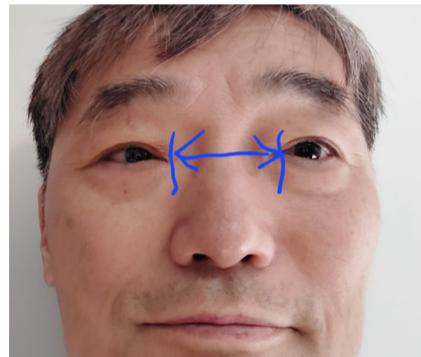
큰돈을 걸지는 않았지만 30여 분만에 幾만원이 들어왔고 “어? 조금 더 따면 오토바이 수리비 되겠네” 생각이 들었다. 정말 잠시 후 8만원이 채워졌다. 목표 금액이 완성됐으니 그 다음에는 하는 등 마는 등 죽기만을 반복하다가 자리를 일어섰고 다음 날 ‘배달의 기수’ 청년에게 수리비를 건네면서 정말로 행복했다.

노름에 관한 선배PD들의 에피소드도 심심찮다. 허구한 날 도박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갔던 Y선배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건 애교였다. 간 큰 PD 몇 명이 하루는 라디오 녹음실에서 몰래 포커판을 벌였다. 엔지니어에게 스튜디오 문을 밖에서 잠궜다가 한 시간 후에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패가 잘 안 붙는다고 담배 한 대, 카드 찌는 맛을 더 느끼고자 또 담배 한 대, 이런 식으로 계속 피워대니 30분 지나자 스튜디오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숨 쉴 구석이란 외부로 연결되는 열쇠구멍 뿐, 거길 통해 신선한 공기를 한 모금이라도 들이키려고 줄까지 섰대나 어쩔대나. J선배는 ABU 대상 수상 소감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ABU상이 영광이기는 하나 에이스 포카드의 짜릿함은 없다 “고 해서 전무님께 꾸지람을 들었던단다. 한때 우리 부장 별명은 ‘박젠또’였다. 도박용어로 자주 쓰는 일본어로 ‘넘겨잡기’ ‘때려잡기’라고 번역된다. 그만큼 ‘포커에 능한 분’이었다는 뜻일게다.

▶미간(眉間)

일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느 작가가 ‘눈과 눈 사이가 먼 사람의 얼굴이 착해 보이더라’고 했다. 나아

말로 미간이 넓은 대표적인 얼굴이다. 내 두 눈은 거의 ‘이산가족’ 수준이다. 아예 왼쪽과 오른쪽 눈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줬다. 하나는 ‘디아’, 다른 하나는 ‘스포’다. ‘디아스포라’에서 따왔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한번 떨어진 친척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듯 내 두 눈은 각각 다른 나라에 입양된 자식들 같다. 관상학적으로 미간이 넓은 사람은 일단 동안童顔으로 보인다는데 나는 이에 대한 극단적인 경험을 했다. 40살에 일본 慶應大學에서 학부생들과 공부할 때 교수가 내게 이렇게 물은 거다. “자네는 4학년인가?” 저는 4학년이 아니고 마흔입니다 ㅎㅎ. 그런데 이 얘기를 들려줬더니



아내는 입을 썰쭉거리며 한마디 씩붙였다. “에휴, 어찌다 눈썹미 없는 교수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ㅉㅉ”

눈썹과 눈썹 사이가 먼 사람은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참을성이 좋으며 낙천적이라고도 한다. 자기 주관이나 추진력이 약하고 ‘결정장애’를 앓을 수 있고 거절을 못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구설수에 취약하다고도 한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이런 대목도 있다. “미간이 넓으면 흐리멍텅하고 지능이 낮은 것 같은 인상을 줌” 이걸 인권침해가 소지가 될 수 있어서 거론하기 쉽지 않은 사례지만 1995년 무렵 내가 ‘이문세의 별밤’ 연출자로 있을 때 다운증후군(혹은 복합장애)을 갖고 있는 복지원생들을 위해 추억을 만들어주는 소풍 행사를 마련한 적이 있었다.

당시의 아이돌 스타들을 온갖 사랑발림으로 꼬여 아침 일찍 용인 에버랜드로 오게까지는 했지만 오전의 레크레이션 댄스 순서에는 도저히 불러낼 수 없었다. 모두들 피곤해서 타고 온 승합차에 쓰러져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밤늦도록 클럽에서 노래하는 그들이 여기까지 와준 것만도 감사한 일이었다. 하는 수없이 PD, AD, 작가와 보조 스탭 등 전원

이 잔디밭에 나가 원생들과 어울려 율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문세 씨가 갑자기 내게 전갈을 보내왔다. 자기는 무대에 있는데 PD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매니저에게 찾아보라고 했단다. “나? 여기서 원생들과 계속 춤추고 있었는데, 안 보였어?” 진행자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필시 나의 어색한 춤동작과 더불어 유난히 넓은 미간 때문이었을 거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니까 그가 무리에서 나를 구별해 내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친 김에 그러면 눈과 눈 사이가 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어떨까? 그들은 대체로 소심하고 신경질적이며 계산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질투심과 뒤끝이 있어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한번 찍히면 관계를 회복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한다. 신동엽, 규현, 장동건 같은 연예인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리고 보니 신동엽 군을 프로그램에서 자주 볼 때마다 “저 친구와 내 미간을 합해서 둘로 나누면 딱 좋지 않을까”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품었더랬다 ㅎㅎ.

미간이 넓은 건 성형수술로도 고칠 수 없기에 나는 그냥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안경을 맞추기 위해 안경점을 찾아 미간의 길이를 잴 때 주인이 “어이쿠, 우리 가게에 오신 손님 중에 제일 넓으시네요”라는 얘기를 들으면, 신기록에 기뻐하기 보다 ‘표준에 맞춰 태어났으면 좀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그건 다음 생에서나 가능할 일이고 우리 ‘미간 클럽’ 동지들, 김우빈, SES의 바다, 태연, 수지 그리고 신입PD 시절 함께 했던 ‘임국희’ 여사님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난 미간의 여왕 ‘재클린 케네디’ 여사님의 명복을 빈다.



가장 믿음직한 MBC 뉴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 2년 연속 신뢰도 1위!



바른 뉴스
힘 있는 뉴스

MBC 뉴스데스크

월~금요일 저녁 7시 40분 | 토·일요일 저녁 7시 55분